

# 中央藥大 同門會報

여름

2003년 제13호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 3. 시론  
다시 희망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며!
- 4. 프로필  
제14대 회장단, 제14대 이사 명단
- 8. 정기총회/동문회소식  
새 회장에 임상목동문(8회) 추대  
수상을 축하합니다!  
인수인계, 고문회의, 회장단회의, 여동문회의
- 12. 여동문회소식  
제8대 여동문회 출범
- 13. 좋은만남  
초창기 발로 뛴 선배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 14. 지부별소식  
도봉·강북구지부/중앙인의 긍지로 살아온 시간들  
용인시지부/땀을수룩 윤기가 나는 지부
- 16. 동기별소식  
16회/ 신선이 되어 노닐던 하루  
17회/ 졸업30주년 기념행사를 기다리며
- 20. 별난동문이야기  
아프리카의 노을
- 22. 문학산책  
愚公移山 精衛填海
- 24. 특별기고  
행복의 꽃을 피우기 위해 유전자 스위치를 ON으로...
- 25. 만평  
出帆!! "默" 時代
- 26. 회원동정
- 28. 모교, 총 동창회 소식
- 30. 동문기금  
발전기금 조성 내역
- 32. 편집후기

**여름**  
2003년 제13호

# CONTENTS





임 상 묵  
(8회, 동문회장)

## 다시 희망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며!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중앙인의 대열에 참여한 지 어언 40여년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우리 중앙약대 6천여 동문들의 대표로 뽑아 주신데 대해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 또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약학대학은 전직 회장님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모든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명실공히 타 대학의 모범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각에서 동문회에 대한 애착이 갈수록 흐려지는 것 같다는 몇몇 분들의 걱정스런 지적이 있어온바, 저로서는 1회에서 47회에 이르기까지 배출된 우리 동문들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큰 것이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에게 부여된 큰 소임 중의 하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그간 진행해 왔던 동문회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들을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특히 젊은 후배들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동문회로 탈바꿈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모름지기 우리 동문회는 원로 선배님들의 경륜과 애정을 통해 다져온 기반 위에 젊은 후배들의 패기와 열정이 합쳐질 때 비로소 더 큰 발전을 위한 추진력이 형성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화합과 단결을 통한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의 의지

가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회관건립기금, 장학기금 모금사업 등의 성공적인 정착을 거울삼아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위시하여 목적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모교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동문회의 중차대한 모든 사업을 회장 혼자 힘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회장단이 정말로 솔선수범하여 앞장 설 각오를 재삼 다짐하는 지금, 실질적인 추진의 원동력이 될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희망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리자 합니다. 동문 모두의 힘이 합쳐질 때 작은 불씨가 점화되어 활활 타오르는 발전의 불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동문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고, 제가 힘들어 할 때는 뜨거운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만에 하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추상같은 채찍질로 지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이 모두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 14 대 회장단

## 회장



임 상 목 (8회)

## 감사



홍 병 석 (6회)



김 영 일 (7회)



윤 주 섭 (8회)

## 부회장



조 의 환 (8회)



김 돈 기 (8회)



허 근 희 (8회)



장 승 자 (8회)



장 진 유 (8회)



권 혁 구 (9회)



이 규 진 (9회)



박 호 일 (10회)



유 정 사 (10회)



정 덕 호 (11회)





황공웅 (11회)



박찬희 (11회)



노덕재 (12회)



이호섭 (12회)



서국진 (13회)



안병식 (13회)



엄태항 (14회)



김종렬 (14회)



최광식 (16회)



조기현 (16회)



양희익 (17회)



정명진 (18회)



양만기 (18회)



김경오 (19회)



김미담 (19회)



김현태 (20회)



정찬현 (20회)



김두수 (21회)



최광훈 (22회)



박종화 (23회)



김영식 (23회)



김승재 (24회)



이내흥 (25회)



# 제14대 이사 명단

- 제1회 | 홍흥만, 김육동, 김기홍, 김순일, 손동현, 이광표, 이동화, 장 레, 조덕열, 홍석부
- 제2회 | 고두흔, 김종욱, 서화택, 이문규, 이택성, 정덕화, 지선훈
- 제3회 | 노인배, 배영식, 김석자, 박종순, 선우연, 성열호, 안경식, 이기상, 윤영식, 안재민, 오세형, 최종목
- 제4회 | 천흥기, 구본원, 김기호, 김춘근, 김현용, 김홍수, 문창하, 박노일, 박승배, 신영식, 정재현, 안국영, 우정희, 이광호, 이연수, 이창우, 최영만, 한민희, 허인희
- 제5회 | 김상오, 강태일, 김명섭, 김영배, 김영훈, 김을경, 김종무, 김채윤, 박명자, 박영규, 신화우, 윤원영, 이명환, 이송학, 이령자, 정혜영, 정훈교, 임영규, 임창균, 조동준, 조휘제
- 제6회 | 임성기, 김경희, 김동열, 김명기, 김병기, 김태형, 유상열, 박정배, 신정숙, 안대훈, 안병한, 안인혁, 우병하, 이현영, 임완호, 최길영, 한병우
- 제7회 | 정재일, 강승안, 권오성, 김영덕, 김정부, 박명신, 박상용, 박수배, 박숙자, 박양시, 배동운, 서명규, 신완균, 유영후, 유윤자, 이기안, 이능세, 이양현, 이용원, 임종일, 임종홍, 장영수, 전승규, 정조원, 조복행, 최무송, 최용선, 최춘자, 한경석, 한철희
- 제8회 | 임상목, 조의환, 김돈기, 장진유, 허근희, 강창호, 김성숙, 김신자, 김연희, 김희영, 김홍자, 김형이, 문옥자, 박도규, 박번일, 배영애, 이백천, 주왕기, 장영자, 최영자, 허청욱
- 제9회 | 권혁구, 이규진, 김의섭, 강군모, 권태섭, 김정관, 김정보, 김정완, 김창용, 상병준, 신순철, 양무웅, 오희영, 이근배, 이광일, 이영숙, 이승규, 조정기, 최인자, 허홍수, 황태선
- 제10회 | 박호일, 유정사, 김정남, 서정목, 이대윤, 이명창, 이양원, 이영민, 조규동, 장영조, 정수길, 주정덕
- 제11회 | 정덕호, 황공용, 박찬희, 김미자, 김창종, 민대식, 박신규, 박상희, 오종철, 황문상, 허정범
- 제12회 | 노덕재, 이호섭, 강옥희, 김 구, 김옥인, 김일권, 남기탁, 노석준, 박영찬, 심재웅, 오춘택, 우준하, 이관하, 이효훈, 전희자, 조택상, 최병호, 현병호
- 제13회 | 서국진, 안병식, 김종성, 김병현, 문재빈, 박동규, 박현숙, 신선철, 이상길, 이종각, 이충식, 오영지, 엄계숙, 임유재, 송옥순, 정명우, 지혜란, 최창엽, 황근성



- 제14회 | 엄태항, 김종렬, 구종모, 김명웅, 김영춘, 박기진, 신광근, 안태화, 양인승, 윤대봉, 윤성하, 정도연, 정진모, 조영연, 지성배, 채성기
- 제15회 | 안준택, 김승태, 김용의, 김형수, 박석동, 신대식, 안민철, 임영식, 이영운, 조찬휘
- 제16회 | 최광식, 조기현, 강명채, 권영복, 김광식, 송용만, 안태환, 오규진, 이상규, 유기욱, 이은술, 이은주, 하상권
- 제17회 | 양희익, 신상직, 김기종, 김대회, 김성지, 김성택, 김인형, 김인회, 김재천, 김종환, 김태성, 신창억, 유승화, 윤희숙, 이동우, 장재인, 전상훈
- 제18회 | 정명진, 양만기, 강성원, 강응모, 김기명, 김상각, 김애경, 박계환, 이원영, 전광우, 조중형, 최수영
- 제19회 | 김경오, 김미담, 김홍옥, 남상구, 박호식, 안형수, 옥태석, 유태일, 윤건섭, 이경옥, 차영수
- 제20회 | 김현태, 이신규, 문주기, 유영내, 이극선, 이호선, 최석중, 정찬헌
- 제21회 | 김두수, 김수배, 김동연, 김동학, 김진자, 백기홍, 백운경, 전명선, 유승울, 이규섭, 이종희
- 제22회 | 최광훈, 고부환, 강명희, 강희윤, 김종성, 김홍진, 박상용, 오황영, 이명옥, 이준상, 손의동
- 제23회 | 박종화, 김영식, 강한구, 곽창림, 방용남, 양재업, 이도익, 임준석, 제갈희, 정덕기, 조근태
- 제24회 | 김승재, 갈원일, 김기환, 김동섭, 심영철, 원경선, 이광섭, 이규삼, 이범도, 이형수, 장규욱, 정종근, 조종래, 최명배, 최재윤, 최영욱, 함삼균, 함한성, 김관식, 안병권, 윤규형, 황규진(A)
- 제25회 | 이내흥, 고성권, 김광호, 김영식, 김희섭, 이재희, 이민원, 최두수, 조석현
- 제26회 | 김정수(A), 김정수(B), 심상수, 진희억, 황완균
- 제27회 | 이창오, 김덕진, 오흥설, 이무택, 이상필, 최면용, 오순용, 한봉길
- 제28회 | 안희규, 강철순, 김영희, 김희식, 양덕숙, 임채욱, 장원규
- 제29회 | 이 준
- 제30회 | 김광식, 고석일, 김성배, 도민숙, 백영주, 이장무, 최병원, 홍성광



# 새 회장에 **임상목**동문(8회) 추대

## 기존 임원임기 3년서 2년으로 단축, 약대발전기금 11억 7000여만원 조성

본회(회장 유영후)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임상목동문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기존 임원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부터 적용기로 했다.

임상목 신임회장(8회)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선후배 동기의 노력으로 동문회가 꾸준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젊은 후배가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동문 모두의 화합과 단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문회지 등 앞으로의 사업 전반에 걸쳐 회원의 사랑어린 격려와 채찍을 당부했다.



3년간의 임기를 마친 유영후회장은 “역대 회장은 물론 모든 회무에 정성을 다해준 동문들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발전기금 조성

사업, 장학사업 등 모교 발전을 위해 신임집행부가 더욱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최영욱 학장은 지금까지 모아진 11억 7000여만원의 발전기금 성과를 보고하고 약학관 신축과 교육 연구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발전기금조성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여동문회장으로 선출된 박찬희(11회)동문은 “여동문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문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수 중앙대 총장을 비롯, 성대석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손동현, 김종갑, 허인희 명예교수 등 모교교수, 한석원 대약회장 및 임원, 전영구 서울지부장, 박옥규 한국여약사회장 및 재경 약학대학 동문회장단, 제약사 관계자 등 내외빈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감사에는 홍병석(6회) 김영일(7회)동문 유임, 윤주섭(8회) 동문이 새롭게 선출됐다.

### 축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기총회









# 수상을 축하합니다!

▶ 총장공로패	손동헌(1회) 명예교수	이해석, 강태일(5회)부부	
▶ 총동창회장 공로패	이송학(5회) 광명지부	김명웅(14회) 공향터미널 대표	
▶ 학장 공로패	방순환(10회) 새가정약국	안병식(13회) 모범약국	
▶ 동문회장 공로패	이백천(5회) 부산지부	서황석(9회) 미주지부	박영찬(12회)
	조중목(13회) 강동지부	박효식(19회) 강서·양천지부	김미담(19회) 여동문지부
	임경원(20회) 수원지부	박종화(23회) 온누리약국 체인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이광섭(24회) 서울적십자병원	이규삼(24회) 서초지부	김승재(24회) 안산지부
	김영희(28회) 여동문지부	원주현(30회) 평택지부	



1. 이해석, 강태일 부부
2. 손동헌(1회)
3. 안병식(13회)
4. 서황석(9회)
5. 박영찬(12회)
6. 김미담(19회)
7. 박희용(23회)
8. 김승재(24회)
9. 이규삼(24회)
10. 이광섭(24회)
11. 김영희(28회)



## 인수인계



- ▶ 일시 : 6월 10일 동문회관
- ▶ 참석 : 신임=임상목 회장, 정명진, 김경오 총무  
전임=유영후 회장, 서국진, 윤대봉 총무
- ▶ 안건 : 회무 전반, 관련기금 현황 확인 및 인수인계

## 고문회의



- ▶ 일시 : 6월 12일 한일관
- ▶ 참석 : 김기홍, 오세형, 최종목, 김채운, 임완호, 유영후 고문, 임상목 회장, 정명진 총무
- ▶ 안건 : 1. 6월 10일 인수인계상황 보고  
2. 임원구성 보고  
3. 개교 50주년 행사에 관한 건  
4. 대한약사회 선거에 관한 건  
5. 재학중 동문회 장학금 수혜동문들에게 후배 사랑 장학기금 출연 권유키로 의견 모음

## 회장단회의



- ▶ 일시 : 7월 19일 동문회관
- ▶ 참석 : 임상목 회장, 김돈기, 장진유, 이규진, 황공용, 박찬희, 이호섭, 김종렬, 정명진, 양만기, 김현태, 정찬현, 최광훈, 김영식, 김승재
- ▶ 안건 : 1. 제14대 임원구성의 건(회장단 34명, 이사 398명, 상임위원장 11명)  
2. 초도이사회 개최의 건  
- 일시 : 2003년 9월 27일 오후 6시

## 여동문회의



- ▶ 일시 : 7월 2일 동문회관
- ▶ 참석 : 임상목 회장, 박찬희 여동문회장, 정덕화, 김석자, 우정희, 최춘자, 강옥희, 엄계숙, 이경옥, 김미담, 이명옥, 김희식
- ▶ 안건 : 1. 여동문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도움이 되는 강의나 모임을 통해 많은 여동문이 참여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  
3. 짝수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로 모임변경



# 제8대 여동문회 출범

우리 여동문회는 모든 여동문들의 좋은 의견을 될 수 있는대로 반영시킬 것이며, 의약분업으로 서로 어려운 이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정담도 나눌수 있는 여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찬 희**  
(11회, 여동문회 회장)

어느덧 한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선·후배 동문님들께 이렇게 늦게나마 글로써 인사를 대신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랜 산고 끝에 제8대 여동문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강옥희 회장님의 '지구를 옮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쉽다' 라는 말에서 그간 여동문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경옥 총무와 함께 열심히 여동문회를 위해 애쓰셨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덕화 자문위원님께서 '통으로 보나 어디로보나 회장감으로 태어났다' 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는데 봉사하는 회장단에게 힘을 주는 것' 이라는 여러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동문회가 선배님을 존경하고 후배들을 사랑하는, 어느 타 대학의 동문들보다 결속이 잘되어 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여동문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동문회가 총동문회의 내조, 외조를 하며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확고히 부각될 수 있도록 선·후배 여러분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동문회는 모든 여동문들의 좋은 의견을 될 수 있는대로 반영시킬 것이며, 의약분업으로 서로 어려운 이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정담도 나눌수 있는 여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동문회 정기총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선배님들의 지혜와 노하우는 우리 여동문회를 더욱 발전하게 하는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과 박수를 아끼지 말아주시고, 잘못된 일은 엄한 질책을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초창기 발로 똥 선배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 최윤종 전임 동문회장을 모시고



지난 1996년, 중견 제약업체인 센트랄제약의 운영을 접고 도미한 전임 최윤종 회장(4회, 제 10대 동문회장 역임)이 잠시 귀국한 기회를 빌어 동문회 사무실을 방문하셨다. 지금 LA의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12명의 동기가 모여 골프모임도 갖고 부부동반으로 여행도 다니는 재미에 별 불편함을 못느끼신다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다.

센트랄제약을 경영하기 전 10수년을 삼성제약에 입사하여 그야말로 부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학술이며 영업이며 대관이며 의욕적으로 활동하던 시절을 회고하는 최회장은 동문회 사무실이 채 갖추어지지 않았던 초창기 동문회 활동에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셨다. 약학대학 50년사 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초기의 기록이나 자료들이 남아있을 여지가 없었던 열악한 저간의 사정을 아쉬워하며,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던 초창기 동문회 임원들을 한분 한분 회고하시는

모습이 그 당시의 치열한 활동을 다시 보는 듯 했다. 오로지 발로 뛰어다니며 각고의 노력 끝에 입주하게 된 지금의 동문회 사무실이 마련되기까지 애쓴 당시의 선후배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되다는 당부의 말씀을 강조하셨다.

끝없이 이어지는 일화들 속에서도 특히 그간 약사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특정대학이 아니면 명함도 못내밀던 시절, 우리 동문회 최초로 영등포분회장을 거쳐 서울시약 총무위원장과 대약 총무위원장을 역임하며 본격적인 대외활동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4회 노봉하 선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은 큰 수확이었다.

즐거운 추억 중의 하나는 현재 동문회의 대표적인 소그룹 활동의 하나인 골프모임 청룡회를 가꿔 온 것으로, 이기상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회장직을 이번에 동문회장을 맡은 임상묵 총무와 함께 인수하여 회원 교류 및 기금확보에 노력, 현재의 기틀을 잡은 것이 큰 수확으로 남아있으며, 이제 모임이 커져 후배들 주축의 소청룡회까지 결성되어 날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듣고 남다른 감회를 토로하셨다.

마지막으로 동문회 활동과 관련하여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문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강력한 리더쉽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여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어렵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할 임원진의 활동방향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차 한잔의 여유와 함께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 동문회관 입주식 (1991. 9. 17.)



## 중앙인의 공지로 살아온 시간들



**신 상 직**  
(17회, 도봉·강북구지부장)

구로지부에서 도봉·강북지부로 이전한 지도 벌써 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정말로 실감이 납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들을 중앙인이었기에 지금까지 중앙인의 공지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원고청탁을 받고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도 하고 망설였지만 두서없이 몇자 적어 볼까 합니다.

도봉구에 첫 발을 디디며 개업인사차 동문회 모임인 '인수회'에 참석하여 선배님들을 뵙고 인사드릴 때 저희 도봉·강북지부 전임 회장이시던 권 태섭 회장께서 저를 소개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약사회나 동문회에 쓸만한 인재가 왔다고 격려의 말씀을 하셨을 때 순간 당황하고 송구스러웠던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나이 많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구로구에 있을 때 동문회나 약사회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될만한 일을 할 위치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문회 체육대회, 홈커밍데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 모교를 한번 더 찾게되고, 생각하게 되며, 나아가서 모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 저는 “다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제가 부담없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기실 마음의 부담을 약간 가지고 동문회 일에 작은 심부름이라도 하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임했음을 즐겁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제가 현재 약사회 회장직과 지부 회장직을 함께 맡고 있으니 세상일이란 이렇게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임 총동문회 회장인 유 영후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동문회 체육대회, 홈커밍 데이도 부활시켜 주시어 각 지부들간의 유대 관계가 더욱 더 돈독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부도 노원지부와 함께 참석(2회 참석)하여 비록 좋은 성적은 내지 못하였어도 그날 하루 선후배간의 우애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모교를 한번 더 찾게되고, 생각하게 되며, 나아가서 모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부장을 맡은 지 일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동문회 발전 및 지부 발전과 회원들의 인화 단결에 성심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 뉘을수록 윤기가 나는 지부

## - 용인시지부가 인사드립니다



**김 광 식**  
(30회, 용인시지부 총무)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석성산 마루에 오르면 하얀 운무 위 멀리 태화산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 태양에 잉태되어 생겨난 용인은 이름부터 상서롭습니다.

상서로운 땅 용인에 개국한지도 벌써 10년이 되어갑니다.

10년간의 용인은 참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약국 수만 해도 제가 용인시의 50번째 개국이었는데, 지금은 동문약국만 2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 옛부터 터를 잡으신 5회, 7회, 8회 선배님들, 신갈, 수지의 발전과 함께 들어온 도시형 선후배 동문님들... 만나면 모두 반갑고 스스럼없이 어울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용인시에는 동문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용인시 3개반(용인반, 수지반, 신갈반) 반장이 모두 우리 동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기투합하여 2003년 7월 5일 총동문회 회장님을 모시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42번째 지부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 행인 도인 산조인 백자인 용인

인(仁)은 약간 딱딱한 껍질로 덮여 있어서 그 속을 빼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기름기가 있어 뉘을수록 윤기가 나며 본연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과 같이 껍질을 깨고 나오기는 어려웠지만 뉘을수록 윤기가 나는 용인시지부가 되겠습니다.

회장에 조경신(7회)동문, 부회장은 오항록(23회) 동문이 맡았고, 수지의 우종오(29회) 동문, 용인의 김광식(30회) 동문, 신갈의 이종호(41회) 동문을 총무단으로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동문회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익은 없고 잘해야 본전이라고 모두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동문회가 여러 동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지언정 손해가 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행인 도인 산조인 백자인 용인

인(仁)은 약간 딱딱한 껍질로 덮여 있어서 그 속을 빼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기름기가 있어 뉘을수록 윤기가 나며 본연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과 같이 껍질을 깨고 나오기는 어려웠지만 뉘을수록 윤기가 나는 용인시지부가 되겠습니다.

먼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달려와 축하해 주신 임상목 총동문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지리산 등반!

얼마나 가슴 설레는 단어인가! 그것도 대학동기 친구들과 함께라니...  
2002년 12월 졸업 30주년 행사 때 68동기회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결정한 바 있는 2003년의 첫 행사로서 기획이 되었다.

6월 8일 지리산등반을 계획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오랫동안 홍보하고 차편, 아침식사, 점심 예약 등 만반의 준비와 답사까지 다 마쳤는데 막상

## 신선이 되어 노닐던 하루

68동기들 지리산등반을 다녀와서...



최 광 식  
(16회, 동기회장)

D-day가 다가오니 가슴이 설레고 친구들이 얼마나 참가해줄지 걱정이 앞선다.

사실 행사일정을 6월 6일~8일까지가 황금의 연휴라서 15일로 늦췄는데 날씨가 안 좋다는 일기예보에 애를 태우며 기다렸다. 아침부터 빗방울이 제법 내리더니 종묘 세운상가 앞에 대절된 차량에 도착하니 비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내렸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강북팀 5명이 다 나와 주었고, 강남 서초구청 앞에 가니 15명 정도가 비를 맞고 있다가 반갑게 합류하여 20명이 예정대로 7시 40분쯤 출발하였다. 중간지점인 금산IC에서 상주로부터 개인 차량으로 온 박재홍 동기가 합류하여 노고단 성삼재로 곧장 달려가니 곳은 비도 그치고 날씨가 맑아져 산행하기 좋은 날씨로 변해 있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들면서 한시간 정도 오르니 넓게 펼쳐진 노고단 정상이 우리를 반긴다. 비 온 뒤 노고단 정상의 하늘과 구름과 신록과 공기는 너무 상쾌하여 우리는 신선(神仙)이 된 기분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노고단 정상에서 저 발아래 가물가물하는 속세를 내려다보면서 모든 근심걱정 다 잊고 오래오래 여기서 친구들과 더불어 머물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고 억지로 하산을 하였다. 한참을 내려오는데 이상규 전임회장이 등산화 밑창이 떨어져 찢룩찢룩 하면서 내려오다, 한쪽을 마저 떼어버리고 맨발로 걸어오면서 하는 말이 "10년간 안 신다가 오늘 신고 나왔는데 10년 세월에 등산화가 다 삭았다"며, "우리도 운동 안하고 약국에만 붙어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자주 산에 다니라고 해서 한바탕 웃었다. 점심을 2시 반에 달궁 계곡에서 미리 주문해 놓은 산채 백반과 금방 마당에서 따온 고추와 상추를 된장에 찍어 막걸리와 더덕주를 먹으면서 옛날 대학시절로 돌아가 교가도 부르며 철부지 같이 놀았다.

여기에서 전주, 남원, 함양 동기인 규원이(와이프도 동행), 상현이, 주열이, 창호가 반갑게 맞이하여 같이 놀았고, 헤어질 때에는 세 친구의 선물(고급 다과상30개)과 박창호 친구의 찬





조금을 받아 소중하게 사용하였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여름 휴가도 지리산으로 오라는 부탁을 받으며 아쉬운 작별을 하고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달궁 계곡에서 탁족(濯足)행사를 하며 놀려고 했는데 시간상 못하고 계곡을 빠져나오는데 규원이 마나님과 몇몇 사람이 발을 물에 담구고 탁족을 하고 있다가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드는 게 아닌가! 그래 바로 저건데! 옛 선비님들의 여름 피서법으로서 탁족을 우리도 흉내내 보려 했건만 아쉽게도 친구 마나님이 그나마 우리를 대신해서 세속에 묻은 때를 씻어주는구나 하고 위안하였다.

다음 코스로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 소재하고 통일신라 흥덕왕 828년에 창건되었으며, 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유일한 고찰이며, 유명한 법정스님이 주지승이고 최근에 새만금갯벌살리기 삼보일배 고행을 하였던 환경운동가인 수경스님(55세)이 있는 곳이라서 더욱 의미가 새로운 실상사를 구의여행사 강사장님의 풍부한 내용과 달변의 설명을 들으면서 돌아보느라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실상사(www.silsang.net)는 삼층석탑 2기, 석등, 부도 등 열가지도 넘는 보물을 갖고 있어 유명하지만 더욱 인상적인 것은 보광전 단청이 안되어 있어 검소한 느낌과 기둥이 한아름도 넘는데 싸리나무기둥이라서 놀랐고 해우소는 단아한 목조 건물로 미적 감각이 살아있어 일본에 까지도 알려진 바 있다해서 모두들 들어가 '흔적'을 남기고 나왔다. 또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여유를 느끼게 하면서 운치를 더해 주었다. 약사전을 구경하고 나오는데 백승복 동기가 갑자기 오십센티 높이의 계단을 헛디뎌서 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깜짝 놀라 일으키고 보니 멀쩡했다. 덩치가 덩치인 만큼 많이 다쳤을 거라는 불안감에 걱정 했는데 괜찮으니 모두 기분이 좋아져서 "약사라서 부처님이 봐주었다", "하체가 부실해서 그랬다", "약사전에 와서 불평한 것을 조금만 혼낸거다" 등 한마디씩 하면서 흠을 털어 주며 위로해 주었다.

정말 천만다행인 순간이었다. 웃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소낙비가 한줄기 쏟아져서 짹째 차에 올라 서울로 출발했다. 참으로 알곳은 날씨지만 고맙기만 하였다. 막힘도 없이 서울로 올라오니 저녁 9시 50분, 예정된 스케줄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다녀왔다. 하루가 참 길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 68동기회는 이런 지역순방 형식의 등산행사를 꾸준히 하여 시간이 없어 서울에 올라오기 어려운 동기를 우리가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이 행사를 계속하려고 한다. 오는 9월 20~21일에는 무박 2일로 속초 설악산을 다녀올 것이며, 계속해서 대전지방의 대둔산, 계룡산, 영남지방의 주왕산 등을 고루 다닐 예정이다. 많은 동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그럼 설악산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 68동기회는 이런 지역순방 형식의 등산행사를 꾸준히 하여 시간이 없어 서울에 올라오기 어려운 동기를 우리가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이 행사를 계속하려고 한다. 오는 9월 20~21일에는 무박 2일로 속초 설악산을 다녀올 것이며, 계속해서 대전지방의 대둔산, 계룡산, 영남지방의 주왕산 등을 고루 다닐 예정이다. 많은 동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68동기 화이팅!!





30년!

시간은 아무도 잡을 수 없다고 하는 아주 평범한 진리는 늘 지나고 난 뒤에서야 돌아보면서 아쉬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쉬움을 반복하면서도 유한으로 규정되어지는 시간이 있기에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또 과거로의 기억을 사랑하는게 아닐까? 어떤 이는 시간을 불연속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 의미는 아마도 시간이란 것이 끊임없이 흐르

동기별소식/17회

##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기다리며

끊임없는 '대상적 활동'으로 교감하는 69회



양 희 익  
(17회, 동기회장)

는 것이며 어떠한 규정으로도 정의되어지지 않고 볼 수도 없는 '순간' 이라는 찰나의 조각들이 연속되어지는 것이기에 불연속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장치에 어느새 흑석동 교정을 돌아서 나오면서 저마다 시간의 조각들을 쌓으면서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을 만들어 왔다.

1969년 저마다 아름다운 꿈을 지니고 흑석동 교정에 들어섰을 그때의 모습들이 이제는 아련한 기억속에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때때로 아리게 할 만큼 세월이 훌쩍 뛰어넘어 버린 지금도 나는 여전히 젊음이 활활 타오르던 시절이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예순을 넘어도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라는 말들이 내게는 다가오지 않았던 그 농담과도 같은 진실은 조금씩 나이를 더하면서 이렇게도 와 닿을수 있을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약국 문을 열어야하는 생활을 시작한지도 수십년이 흘렀다. 지금처럼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동네 할머니들은 스스로 당신들의 증상을 진단하여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곤 했다. 그때의 당신들 모습은 세월을 무심히 담고 있었지만 하시던 말씀들은 늘 청춘이라 하셨다. 바쁘다고만 하는 일상들이 그렇게 흘러가면서도 나는 언제나 그대로 서 있을 것만 같았다. 학교 교정을 정열적으로 돌아다니던 그 시절의 나와 졸업을 하면서 약사라는 이름을 지니고 푸른 꿈을 지녔던 그 해, 그러나 어느날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입고 있는 하얀 가운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세월을 지닌 나를 보면서 '아~나도!' 라는 탄식에 가까운 아쉬움을 홀로 내뿜을 만큼 길을 많이 걸어 온 것 같다. 아마도 우리 69회 동기 모두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했던 친구들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래서 먼 훗날 서로를 되돌아보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손을 마주잡으며 반가움에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눌 날을 위하여 1973년 졸업을 하면서 '69동기회'를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스물아홉해의 모임을 가져왔고, 이제 우리 '69동기회'가 졸업 30주년이 된다니 감회가 새로워진다.

69년에 청운의 꿈을 안고 "의에 죽고 참에 살자"라는 교훈을 가슴에 담으면서 들어섰던 파이퍼홀에서 약사가 되기 위하여 힘차게 공부를 했고,



때로는 우리 학교의 상징인 청룡상을 바라보면서 중앙인으로서 가졌던 자부심들, 그렇게 4년을 보내고 졸업을 했다. '69회 동기'는 남학생 73명과 여학생 17명을 배출하였다. 대부분의 동기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포부대로 약국을 경영하면서 자신들의 역량을 높여왔다. 지금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몇몇 동기들은 미국 등지로 이민을 간 동기들도 있다. 그래도 모두가 69회라는 끈으로 이어져 삼십년이 지나가는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한해가 조금씩 마무리되어 가는 11월쯤에 5년전에 모셨던 은사님을 모시고 '69동기회 졸업 30주년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서로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날만은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가 다져왔던 우정의 시간을 더욱더 빛나게 하여 중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연락을 하고 모임이 있는 날은 자신들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소중한 이들이다.

21세기를 사는 요즘은 흔히들 말하기를 '인간부재의 시대'라고들 한다. 급속히 발전하는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사람보다는 물질이 앞서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지금의 시대에서 나는 다시 한번 '우리'라는 69회 울타리를 생각해 본다. 예로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주장하면서 새로이 펼쳐왔던 인간성 회복의 논리들은 급변하는 시대에서 몇몇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다 사라지는 건 아닌지. 현대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인간의 감성을 심도 있게 말하고 있는 '미학'은 철학의 부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한다. 미학을 다시 말하면 '인간 감성학'이라고 한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감성과 감각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가는 학문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대상적 활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어떠한 생산품(작품)이 생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성을 교환하여 생산자(작가)와 소비자가 계속되어지는 교감의 상태를 말한다 한다.

그러므로 우리 69회 동기들의 만남이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한 끊임 없는 관심과 신뢰 속에서 감성적인 대상적 활동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며 모두가 나와 같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졸업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지난 5년 전에 25주년 기념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그때의 만남이 한층 더 무르익어 가는 지금, 한해가 조금씩 마무리되어 가는 11월쯤에 5년전에 모셨던 은사님을 모시고 '69동기회 졸업 30주년 행사'를 가지려고 한다. 서로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날만은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가 다져왔던 우정의 시간을 더욱더 빛나게 하여 중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고자 한다. 서울에 있는 동기들과 지방 각지에 있는 동기들, 그리고 멀리 미국 등지에 있는 동기들의 얼굴들 보고 싶다. 이제 여름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 모든 동문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우리가 조제하는 약들이 단순한 약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감성 어린 약이 되기를 바라면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그 날 '69회' 동기들의 만남을 기다린다.





## 아프리카의 노을

- 케냐 투르카나 사막의 교회와 고아들과 함께한 세월

주진국 목사  
(11회,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빅토리아 호수의 잔 물결 위로 황금 빛 노을이 수만개의 조각으로 부서진다. 그 조각의 편린들 사이로 흑석동 교정을 누비고 다니던 그 시절 기억이 생생하다. 63학번으로 1967년 2월에 졸업했으니 벌써 36년이 흘렀는데 바로 엇그제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선교지 아프리카로 가기 위하여 1983년 조제실을 떠난지 20년이 되었다. 지금 비록 약계를 벗어나 다른 길을 가고 있으나 15년을 투신했던 약업에 대한 향수와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교회 일이나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2세 교육의 철학을 세우겠다는 생각에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던 것이 기대 밖에 나를 목사 그리고 선교사의 길로, 그것도 오지 중에 오지인 아프리카로 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 이 모든 필요를 신(神)이 먼저 알고 공급하신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이 염려함으로 사람의 염려를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게 머리 속에 가득한 염려를 가을 바람에 행구어 버리고, 83년 9월21일 그날은 마침 추석날 아침, 아프리카 케냐로 떠났다. 한국의 농촌에서 자란 나로서는 아프

리카의 후진 모습이 그다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졌다. “골라 골라”를 외쳐대는 까만 사람의 몸짓이 한국에서 많이 보던 것이다. 시골의 야시장, 닭, 계란, 옷가지, 딸감, 식량, 채소, 비누, 화장품 등등 어렸을 때 늘상 스치던 감각이다. 특히 이곳의 언어는 우리말 발음이나, 억양과 유사하다. 우리는 현지인들과 쉽게 친해졌다. 초등학교 1학년 한 학기, 유치원에 다니던 두 딸아이도 잘 적응했다. 아이들에게나 어른에게나 낯선 언어가 별 장애가 되지 않았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역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쪽으로 15시간 가량 운전해서 만날 수 있는 투르카나(Turkana) 사막에서 교회와 고아들을 돕는 일이다. 투르카나. 이곳은 준사막으로 일년에 2~3개월가량 비가 내린다. 우기에

자란 잡초와 나무 가지를 소, 염소, 낙타, 양들이 먹고 생존하며 자란다. 요즈음은 기상변이 잦아 예상했던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가축이 몰사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그 동안 쏟아 부은 노력이 한숨으로 되돌아올 뿐이다. 살길이 실종되면 가장(家長)은 보따리를 싸들고 어디로 사라진다.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다. 도시에든 저들을 위한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을리 없다. 떠난 남편, 아빠는 대개 돌아오지 않는다. 기다림에 지친 엄마가 만날 기약없는 아빠를 찾아 떠나면 아이들은 멀쩡하게 앉아서 고아가 되고 만다. 하기야 부모가 함께 있다해도 자식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으니 이점에 있어서는 부모가 있으나 마나가 된다.

가진 것이라곤 모래 밖에 없는 투르카나인들은 열심히 일할 래야 할 일이 없다. 일자리도 없고, 창업할 것도 없다. 정부나 UN 등에서 몇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지독한 환경의 제한 때문에 아무 것도 되는 프로젝트가 없다. 현지인 목사를 격려하여 교회를 세웠다.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고아, 극빈 아동들에게 급식을 한다. 급식이래야 하루에 삶은 옥수수 한 움큼이 고작이다. 약 20만원의 돈으로 60명의 어린이가 한달을 먹으니 그게 무슨 급식이라



하겠는가. 자장면 한 그릇, 빅맥 하나의 값이면 아이 하나 한달을 먹일 수 있다. 때로는 정부나 여러 구호단체를 통하여 쌀, 밀가루 등 식량이 공급되기라도 하면 한동안은 조금 여유있게 먹을 수 있다.

대개의 고아들은 가까운 친척이 데려다 기른다. 진짜 고아로 떠도는 아이는 많지 않다. 진짜 고아들은 교회 목사에게, 신자 가정에 입양하게 추천한다. 아이 하나를 입양하면 1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3명 이상은 입양을 못하게 한다. 그 적은 돈으로 그 고아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게된다. 대상은 많으나 재정이 따르지 못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다.

집이 별 필요가 없다. 낮의 태양으로 모래바닥이 따뜻하다. 그위에 종려나무 잎을 엮어만든 자리 하나를 깔고 잔다. 밤에 추워지면 핫이불을 덮는다. 나는 이들과 함께 어울려 하늘을 천장 삼아 함께 자곤 한다. 마당에는 독거미와 전갈들이 쉬지 않고 돌아다닌다. 적도의 밤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은 예전엔 정말 몰랐다.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 같이 명멸하는 별빛을 가르며 별뿔별이 넓은 하늘 이곳 저곳에 선을 그린다. 간혹 인공위성도 지나가고, 비행기의 불빛이 별 사이를 헤집다 사라진다.

여러 해 전,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투르카나 사람들이 집단으로 농경지 도시로 들어갔다. 도시에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자기 아이들을 도시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았다. 며칠이 지나 딱한 소식을 접한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모두 트럭에 태워 다시 모래땅으로 돌려보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정부가 할수 있는, 선택의 여지없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이들의 평균 수명은 40세 전후이다. 열악한 환경과 대를 이어온 굶주림이 이들로 일찍 죽게 한다. 문제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노인들이다. 자식이



다죽었는데 노인이 살아있으면, 노인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다. 의지할 데가 없다. 노인들의 모습이 고아보다 더 처량하게 된다. 이들을 위한 양로원을 준비중이다. 필요한 시설 등 기초 경비를 위하여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1년 내내 선교서신에 내었으나 단한건의 질문도 받지 못했다. 그래도 신(神)의 자비로 1천만원이 준비되었다. 이 돈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나머지 금액이 어딘가에서 오고 있을 것이다.

선교지에서 겪었던 가장 심각한 정신적 고통은 아이들의 대학 진학 문제였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선교사 아빠를 둔 덕에 아이들의 대학에 갈 수 없게 되었으니... 누구하나 아이들이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하나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드포(DePauw)대학을 졸업하고 남가주 대학(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영어 전공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같은 대학 학부의 영어를 강의하고 있으며, 작은 아이는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에서 의대 본과를 수학중이다. 나의 작은 드림(giving)에 신(神)은 측량할 수 없이 큰 것으로 되돌려주신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愚公移山 精衛琪海

(우공이산 정위기해)



현 기 원

(27회, 경기도 약사회 홍보위원장)  
 • 시집 '내가 사는 세상에서' 발간  
 • 약사문예 시·수필부문 입선

약국 한 모서리 한약장 위에 표구 되어 걸려있는 액자속에 쓰여진 글귀이다. 풀이하면 우공이란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햇별이 쳐들어와 공부 방해되자 산을 옮기어 햇별을 막았다는 것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노력을 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7년 전 약국을 확장하고 문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지금은 故人(고인)이 되신 박흥기 약사님이 써 주신 것이다. 지금은 이 말이 내 좌우명이 되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나는 이 말귀를 떠올리곤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것이 요즈음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쉽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 같다. 돈과 부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짧은 친구들이 쾌락과 물질만능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제 나도 사십대 중반이 되었다. 불혹의 나이를 넘긴 것이다. 대선배님들에게는 참으로 죄송한 나이지만 인생에 대해서 연민의정이 자꾸만 드는 것은 나도 모르게 지난 세월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리라.

아파트 투기와 복부인이 극성이다. 강남 재개발 아파트가 몇 십억한다고 한다. 십여 년 전 산본에 산 38평 아파트가 전부인 나에게는 상

상이 가지 않는다. 수리산이 있어 공기도 맑고 산세가 좋아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부와 명예는 영원한 것이 아닌데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니 문제이다. 가끔 돈이 부러울 때도 있다. 이자를 갚아야 할 날인데 부족해서 허우적거릴 때이다. 이런 나를 아내는 가끔씩 탓하곤 한다. “18년 약국을 해서 그것도 맘껏 놀지도 못하면서 일했는데 집 한 채 입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물론 억울할 때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건강이 나빠 죽을 고비를 잘 넘기고 아이들 건강하고 집안 편안했으니 이만하면 참 잘 살아온 셈이다. 나는 여행과 운동을 참 좋아한다. 약국을 하다보니 여행은 큰 맘 먹어야 가능하고 운동은 짬을 내면 가능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골프다. 처음 시작할 때 무척 만만하게 보았다. 작은 공을 호미 같은 연장으로 쳐내는 것인데, 제법 운동신경이 있다고 자부한 나로서는 쉬워 보였다. 3년이 지난 지금 참으로 겸손해 졌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골프의 18홀은 인생과도 같다고 한다. 용기와 신념, 결단과 겸손이 어우러져야 18홀이란 길을 잘 운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과 노력이다. 타고난 건강이 어디에 있는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공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것이다. 노력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정도를 걷지 않고 쉬운 길로 가기 위해 타협하고 그 위선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소신인양 말하는 행동은 오래가지 못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도를 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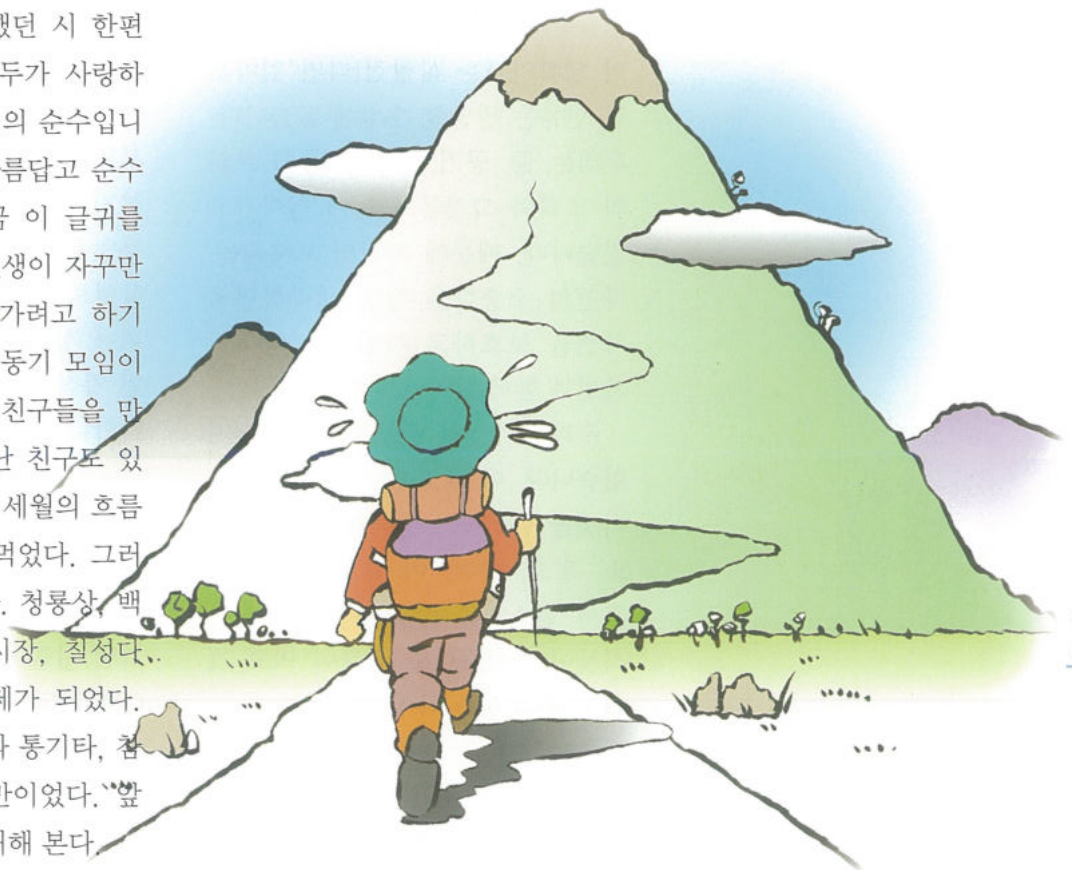
불이 될 것이다. 노력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정도를 걷지 않고 쉬운 길로 가기 위해 타협하고 그 위선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소신인양 말하는 행동은 오래가지 못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도를 가야 한다. 중앙대 약대 동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유는 선후배의 정이 언제나 돈독하다는 것이다. 그 속에는 나이와 위선도 없고 부와 명예도 없으며 오로지 동문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옛날에 습작했던 시 한편이 생각난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것은 신이 주신 본래의 순수입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아름답고 순수해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귀를 반추해 보는 것은 내 인생이 자꾸만 쉽고 탐욕스러운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태전 동기 모임이 있었다. 오랜만에 많은 친구들을 만났다. 졸업 후 처음 만난 친구도 있었다. 교수님도 보였다. 세월의 흐름 앞에서 모두가 나이를 먹었다. 그러나 마음은 학창시절이다. 청룡상, 백색 루이스 가든, 연못시장, 칠성다방... 이 모든 것이 화제가 되었다. 막걸리와 라면, 재시험과 통기타, 참맛갈스럽고 순수한 낭만이었다. 앞으로 자주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

비가 오다 말다 한다. <인생은 짧

고 예술은 길다>라고 한다. 죽는 것이 그리 뭐 큰 대수이겠냐 만은 아무런 흔적이나 족적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좀 억울한 듯 싶다. 앞으로 자주 여행을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소망하던 글을 쓰고 싶다. 세상을 향해서 순수하게 불타오르는 작열감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쓰고 또 쓰고 싶다.

‘우공이산 정위기해’ 처럼 인생을 살면서...





# 행복의 꽃을 피우기 위해 유전자 스위치를 ON으로...



김 채 윤  
(5회, 고문)

세상에 자기능력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물이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동식물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이러한 여러 가지 덕분에,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Something great"의 덕분에 어쨌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점점 더 과학기술은 진보하고 이것을 멈추게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만 혹은 어떤 인간만이 행복을, 또는 자기 자신만이 행복이라는 삶을 산다면 얼마후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 공기, 동식물 등의 자연의 조화와 그것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의 고마움을, 자연의 소중함을 항상 생각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가 어디서 왔는지, 이것을 원소까지 분해해 봅시다. 산소, 질소, 수소. 이 원소는 전부 지구의 원소입니다. 지구의 무기물을 식물이 빨아들이고 동물이 먹고 그리고 우리 몸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맹렬한 기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빠른 장기는 보름 정도면 반정도 바뀌게 됩니다. 이 원소는 전부 지구의 원소입니다. 지구

의 원소는 우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틀림없이 우주의 자손이며 지구의 자손입니다. 지구의 원소를 빌려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것은 사망률 100% 입니다. 모두 죽습니다. 자기 것이라면 영원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죽습니다. 모두 빌려왔기 때문입니다.

몸의 원소는 대자연으로부터 와서 대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행히 빌려오는 것에 대한 청구서는 없습니다. 이런 비싼 것의 청구서가 온다면 누구도 지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누가 주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소로 말하자면 지구의 원소입니다. 그 지구의 원소, 우주의 원소로부터 유전자 암호를 새겨서 지금도 생물을 움직이고 있는 "Something great"가 주인인 것입니다. 생명 본래의 훌륭한 부모가 사용료를 내라는 구두쇠 같은 말은 하지 않지만, 생명 본래의 주인은 무엇을 위해 인간을 만들었는지도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상식적인 생각에 내가 부모라면 자식의 행복을 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복은 자신만의 행복이 아닌, 가족, 친구... 될 수 있는 한 인간의 큰 행복에 도움이 될 때 그런 삶을 살 때 유전자의 스위치가 ON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스위치를 ON으로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좀더 큰 목표 "Noble



goal”, 좀더 고귀하고 큰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왜 큰 목표를 갖느냐 하면 한 인간으로 태어 났다는 것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생명의 부모는 어떤 사람만 꽃을 피우고 다른 쪽 사람은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러한 불공평한 일은 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증거로 인간은 99.9~99.99%의 같은 유전자 암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가 좋아하고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일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

우리는 행복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복은 자신만의 행복이 아닌, 가족, 친구... 될 수 있는 한 인간의 큰 행복에 도움이 될 때 그런 삶을 살 때 유전자의 스위치가 ON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주는 일일 때 유전자 스위치가 ON 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위해 도움이 되는 조금 고귀한 뜻을 가질 때 유전자의 스위치가 밝게 켜져서 모두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김기명(18회, 본지 편집위원)



## 부산동문회 30회 정기총회

2003년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부산동문회 제 30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 10일 저녁 7시에 열렸다. 유영후 동문회장, 강옥희 여동문회장, 최영욱 학장, 황완균 학부장을 비롯 박진엽 부산시약회장, 안의경 신협이사장, 윤도중 재부동문협의회 회장 등 내빈을 모신 가운데 이영주 총무의 사회로 크라운호텔 석류홀에서 개최되었다. 남기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약업계와 소원해 지기 쉬운 시대에 동문상호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자”고 강조하는 한편 모교 약학대학 발전기금 조성에 동문들을 협조를 구했고, 즉석에서 5,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 입학 50주년(1회) 기념행사

2003년 6월 11일~12일까지 입학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덕구온천에서 9명(김대수, 김순일, 박학전, 손동현, 이동화, 조덕렬, 주선호, 최봉숙, 홍흥만)이 참석한 가운데 학창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고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마침 울진에 김대수 동문이 세화약국을 경영하고 있어 많은 편의를 제공 받았습니다.

1회 동문은 6.25전쟁 말에 부산과 익산에서 입학하여 2학년부터 서울에서 합병하여 수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졸업을 할때 故 이승만 대통령께서 축사를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현재 1회 동기는 국내에 40여명, 외국에 12여명, 타계하신 분이 30여명이 됩니다.

## 흑중회(병원약사위원회) 27차모임

- ▶일시 : 2003년 6월 27일 오후 7시 어양
- ▶참석 : 임상목 회장, 최영욱 학장, 최귀령 수녀, 이대운, 조정자, 김승업, 이성우, 윤창현, 이영희, 유화송, 이광섭, 윤희정 동문
- ▶안건 : 모교 병원의 약제부서장은 모교출신이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구체적인 자료 제시하여 학교에 정식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건의할 것





## 모교 교수진 평택지부 방문

평택지부는 평택, 송탄, 안중지부를 합쳐 총 회원 130명 중 중대회원이 36명 정도이며, 매달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태선(9회) 지부장을 선두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선배약사들이 많이 계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분회입니다. 특히 2년에 한번 끝



로 모교 교수님들을 초청하여 평택지부회원과 친목의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7월 12일 초청만찬에는 약대학장을 위시한 보직교수, 원로교수님과 동문회 회장 및 임원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또 최운환 동문(20회) 부인께서 손수 꽃꽂이를 준비하여 교수님들의 방문을 축하해 주었고, 교수님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여 평택지부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칠순이 넘으신 손동현 명예교수님의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 내가 아니면 또 누가, 지

금이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명언과 동년배인 서화택(2회) 동문의 재학시절의 이야기와 노래로 한층 더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마지막으로 다함께 교가 제창으로 모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김미자 동문 서예전람회 입선

김미자 동문(11회)이 제11회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한문 행초서 부분에서 입선을 차지했다.

### 행사

- 5월 10일 성동구 약사회 자선다과회 김영식(23회) 회장
- 5월 15일 은평구 약사회 자선다과회 윤주섭(8회) 회장
- 5월 17일 서초구 약사회 자선다과회 김기명(18회) 회장
- 5월 21일 동대문구 약사회 자선다과회 김경오(19회) 회장
- 5월 22일 송파구 약사회 자선다과회 진희역(26회) 회장
- 6월 5일 김명섭(5회) 의원 '후원의 밤'
- 6월 24일 성북구 약사회 자선다과회 조찬휘(15회) 회장
- 7월 2일 여동문회의
- 7월 5일 용인시(42번째) 지부 창립총회
- 7월 18일 은평구 지부 모임

### 결혼

- 5월 15일 조길도(14회) 이사 자녀결혼
- 5월 25일 안병한(6회) 이사 자녀결혼
- 6월 8일 최무송(7회) 이사 자녀결혼
- 7월 9일 김돈기(8회) 부회장 자녀결혼
- 7월 12일 최병호(12회) 이사 자녀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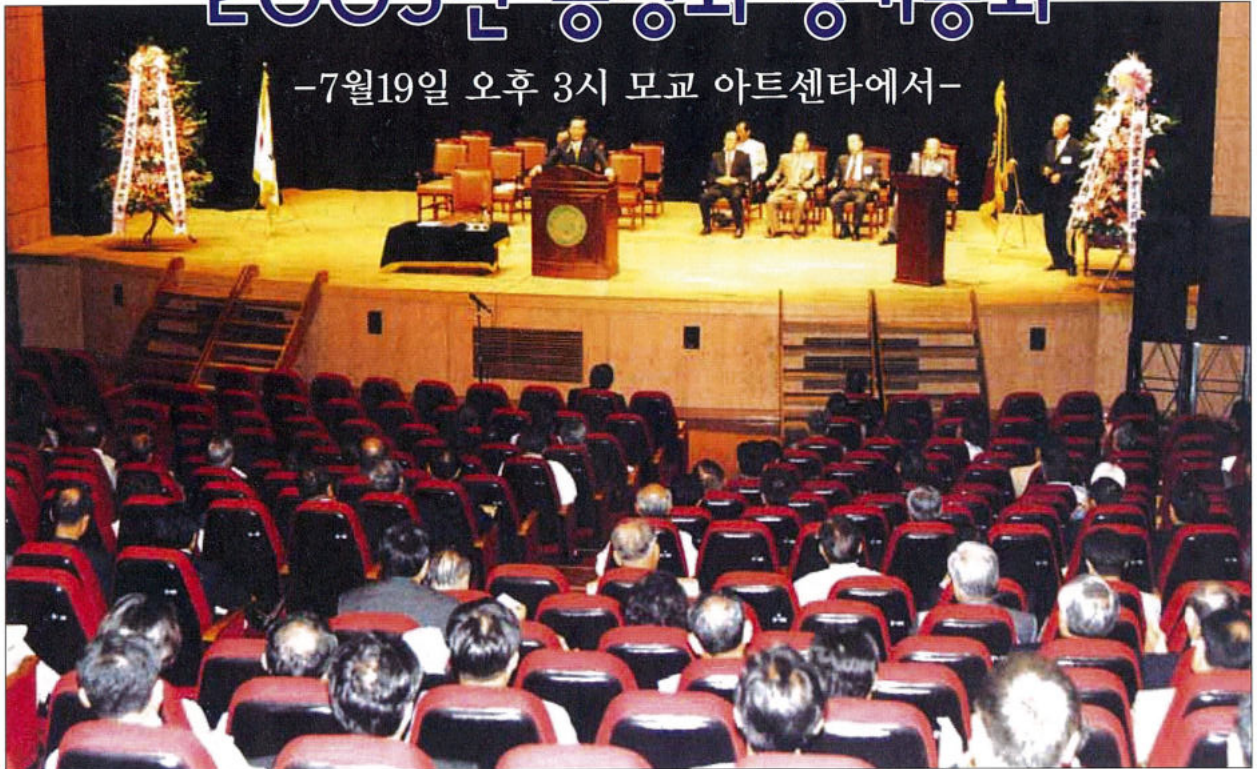
### 부음

- 5월 1일 황공용(11회) 부회장 빙부상
- 5월 15일 안병식(13회) 부회장 부친상
- 5월 19일 김명기(6회) 이사 빙부상
- 6월 1일 조중묵(13회) 이사 별세



# 2003년 동창회 정기총회

-7월19일 오후 3시 모교 아트센터에서-



2003년도 동창회 정기총회가 지난 7월 19일 오후 3시 모교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백낙원, 김순영, 김명섭, 배용수 전 동창회장과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서청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동창회와 모교발전을 위해 동창회 임원진들이 합심협력” 해 준대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동창회 회무보고와 2002년도 결산심의,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현 서청원 동창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원진의 재선임, 기타 토의사항 등의 순서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 1% 기부 100%참여운동

전 중앙인 'I LOVE CAU'에 동참을

모교(총장 박명수)는 오는 2018년 개교 1백주년을 맞아 중앙대학교가 우리나라 명문 3대 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1% 기부 100%참여 I LOVE CAU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 기부운동은 '내가 가진 것의 1%'라는 수치적인 계산이 아닌 기부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캠페인이다.

모교는 1% 기부운동의 모든 참여자에게 학교 신문게재나 교내방송 및 감사편지 발송, 총장 감사장 전달, 본교 달력 우송, 대학소식지 및 생일, 결혼기념일 축하카드 등을 발송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기부자에 한해서는 기부자의 아호나 이름을 기부금의 명칭으로 붙여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건물의 현관이나 복도 그리고 교내 의미있는 위치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 특별 예우할 예정이다. 대학교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다른 비영리법인의 기부금과 달리 '조세특례법'에 의거 기부금의 100%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한편 모교는 박명수 총장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발전 기금과 외부연구기금, 산학협력기금 유치들을 통해 총 6백 68억원을 모금했다.

## 모교예비대학 경쟁률 5.12대1

모교는 지난 5월 30일 2003학년도 예비대학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백명 모집에 512명이 지원 5.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지원한 512명의 학생은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서 고교 1년 성적중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의 5과목 평균평점이 4.5이상인 학생이다.

모교는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 성적을 토대로 1백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향후 이들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5박 6일간 제2캠퍼스에서 예비대학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모교 예비대학을 이수한 학생들은 오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 지원시 '예비대학 수료자 수시모집 특별전형' 지원 자격의 특전을 갖게 된다.

모교의 예비대학이란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고등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진로선택과 인생설계에 유용한 경험과 지식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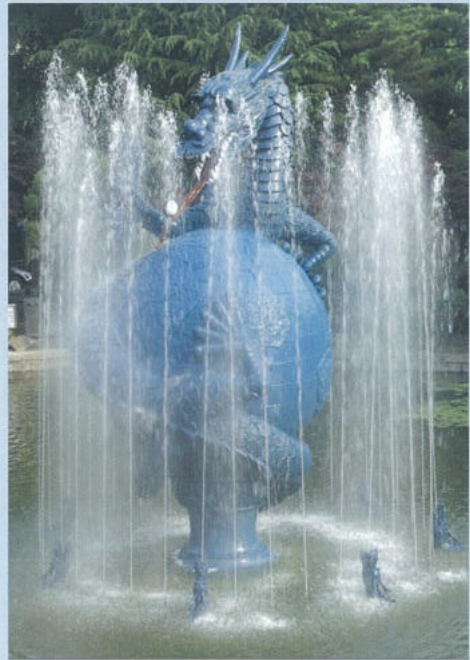
## 국악대학 신축 조감도

모교는 2004년 완공될 국악대학(지상4층 연면적 2,600여평)신축기공식을 지난 6월 16일 제2캠퍼스에서 가졌다.

첨단 교육연구시설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지어지는 국악대학은 강의실 실기실습실, 교수연구실 및 레슨실, 소극장 등으로 지어진다.



## 새 옷 갈아 입은 청룡



청룡상이 초록색 옷을 벗고 파란색 옷으로 갈아 입었다. 모교는 지난 5월 21일 작년에 새롭게 바뀐 UI에 맞춰 청룡상에도 초록색 대신 파란색 색깔로 바꾸어 학교이미지를 통일했다.





# 발전기금 조성 내역

총 12억 2천 3백만원 (2003.7.21 현재)

## 교 수 총 12,100만원

- 〈교내〉 최영욱(1,000), 임철부(1,000)  
 염정록(700), 김창중(500), 김미영(500)  
 이도익(500), 이민원(500), 임채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흥진(500), 심상수(500), 손의동(500)  
 천영진(500), 손동헌(500), 이광표(500)  
 홍순각(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 〈타교〉 오유진(300), 염윤기(300), 권광일(300)

## 학 생 총 5,350만원

## 동문회장단 총 13,600만원

- 유영후(1,000), 정재일(500), 이기안(500), 박숙자(500),  
 조의환(1,000), 김연희(500), 이규진(500), 박호일(500),  
 유정사(5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김현태(500), 김종성(400),  
 김승태(4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임상묵(500), 이규식(300)

## 단체기부 총 1,200만원

- 중삼친목회(300) •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 학부모기부 : 한충강(02 한인빈 학부모 300)

## 개인·부부동문 총 90,050만원

##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 〈1회〉 손동헌(500), 오유진(300), 이광표(500), 홍훈만(300)  
 〈2회〉 고두흔(박명자 부부, 600), 서화택(500), 홍순각(500)  
 〈3회〉 김석자(300), 한만우(1,000)  
 〈4회〉 김기호(500), 이연수(300), 허인회(500)

- 〈5회〉 박명자·고두흔 부부(600), 이송학(300), 이해석·강태일 부부(1,000)  
 〈6회〉 김경희(300), 김동열(300), 김중구(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안병한(300), 유상열(300), 이준장(100), 임철부(1,000), 추의호(300), 홍병석(300)  
 〈7회〉 강승안(500), 김영일(300), 김정부(300), 김정자(300), 박명신(300), 박숙자(500), 박옥규(300), 유영후(1,000), 유운자(300) 이기안(노신희 부부, 500), 이능세(300), 이양현(500), 인고길(300), 임종홍(300), 정재일(500), 한철희(300)  
 〈8회〉 김연희(500), 김형이(500), 문옥자(300), 박찬수(300), 신현우(100), 윤주섭(300), 이백천(1,000), 임상묵(500), 조의환(1,000), 한석원(500)  
 〈9회〉 김영부(500), 노신희·이기안 부부(500), 서황석(500), 이규진(500), 이근배(100)  
 〈10회〉 김삼균(300), 박호일(500), 방순환(12,000), 서정목(300), 유정사(500), 이대운(300), 이양원(300), 장영조(300), 정승수(300), 정수길(300), 정영기(300), 조규동(300)  
 〈11회〉 김창중(500), 민대식(300), 박찬희(300), 이철규(500), 정덕호(500), 최옥출(100), 홍금자·남기탁 부부(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12회〉 강옥희(500), 김 구(500), 김초성(100), 남기탁·홍금자 부부(500), 노덕재(300), 박영찬(1,000), 염윤기(300), 이성우(500), 이정희(300), 이호섭(300)  
 〈13회〉 김신미(100), 김종성(400), 박동규(300), 문재빈·김애련 부부(500), 서국진(500), 안병식(1,000), 윤창현(300), 조종묵(300), 이종각·박종애 부부(500), 조성복·홍순경 부부(500)  
 〈14회〉 김명용(1,000), 김원순(300), 김종열(500), 윤대봉(500), 이규식(300), 정도연(1,000), 정진모(300)  
 〈15회〉 김승태(400), 김용의(300), 박석동(500), 안민철(300), 이인석(300)  
 〈16회〉 강명채(500), 김광식(300), 김선기(300), 박종애·이종각 부부(500), 윤영로(200), 조기현(300), 홍순경·조성복 부부(500), 한인회(300)  
 〈17회〉 신상직(500), 양희약(300), 유종관(300), 정갑진(300), 최해광(300)  
 〈18회〉 강응모·성낙순 부부(500), 김기명(300), 김청길(300), 박계환(300), 정명진(500)



- <19회> 권광일(300), 권영훈(300), 권창호(300), 김경오(500), 박효식(300), 이경욱(300), 이창욱(300)
- <20회> 김영섭(300), 김종갑(300), 김현태(500), 박기배(300), 송열호(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윤춘수(300), 이극선(300), 이신규(300), 임경원·이현숙 부부(1,000), 임구래(300), 정영수(300), 정찬현(400), 지태현(300), 차재근(300), 최운환(300)
- <21회> 김대일(300), 김병무(300), 김수배(300), 박전희(100), 어경남(300), 이규섭(300), 이세진(500), 전명선·김민숙 부부(300)
- <22회> 김홍진(500), 손의동(500), 유대식(300), 이상돈(100), 정진호·강명희 부부(500), 전일오(300)
- <23회> 강호영(100), 공인호(300), 권석형(500), 김영식(300), 박종화(1,000), 박희용(100), 양재업(100), 이도익(500), 이승하(300), 이원길(300), 이정대(100), 임상규(300), 정덕기(300)
- <24회> 김관식(500), 김상현(300), 윤규형(500), 김승재·김희식 부부(500), 이광섭(300), 이규삼(100), 이범도(300), 이영주(300), 임무호(500), 조종래(500), 최영욱(1,000), 최재윤·김윤경 부부(500), 함삼균(50), 홍용기(300), 황규진(300)
- <25회> 고성권(300), 김영식(300), 김춘규(100), 김희섭(300), 성낙순·강응모 부부(500), 위성건(500), 이내홍(300), 이민원(500), 이재희·김은진 부부(500), 이현수(300), 조순현(300), 최두주(300)
- <26회> 김안식(300), 김영후(300), 라종우(300), 문형철(300), 박재길·오옥희 부부(500), 백낙기(300), 선우일원(300), 심상수(500), 이종량(300), 이창훈·이숙희 부부(500), 정태형(300), 진희역(300), 최민규(300), 황완균(500)
- <27회> 안산 79학번 동기회(김덕진, 오순용, 오흥설, 이상필, 이창 오, 이현수, 한봉길 각각 300씩 총 2,100), 남상진(300), 박영달(300), 박수길·이정아 부부(500), 양건모(300),

- 방만성·조순연 부부(500), 이선애(100), 최기선(300), 현기원(300)
- <28회> 김영희(300), 김윤경·최재윤 부부(500), 김유곤(500), 김희식·김승재 부부(500), 박용석(100), 양덕숙(300), 임채욱(500), 이숙희·이창훈 부부(500)
- <29회> 강대용(300), 강철선(300), 김영재(300), 김은진·이재희 부부(500), 서경원(300), 손병로(300), 안성진(300), 유인석(300), 이종민(300), 이 준(300), 이 철(300), 정진호(300)
- <30회> 김광식·윤기숙 부부(500), 김미영(300), 박복자(300), 서봉호(100), 신일균(300), 이인자(300), 장부자(300), 조덕희(300), 조순연·방만성 부부(500), 천세영(300), 최병원(300), 황유세(300)
- <31회> 김진홍(300), 김하형(500), 박건규(50), 이현숙·임경원 부부(1,000)
- <32회> 고은미(300), 박은미(300), 조양연(300), 채영주(300)
- <33회> 박재훈(240), 임희원(300)
- <34회> 민성철(300), 배규환(300), 이선우(300)
- <35회> 팽정근(300), 권준한(300)
- <36회> 방극상(50), 안영윤(300), 우경아(300), 임성호(300)
- <37회> 오상희(100), 정병욱(300)
- <38회> 박용석(300)
- <40회> 한국약품(이병두, 300)
- <43회> 김중호(100), 신명숙(300)

### 회비납입방법

- 은행지로 : 7613953
  - 조흥은행 : 994-04-008036
- 중앙약동문회

### 연간회비

- 회 장 단 : 240,000원
- 이 사 : 120,000원
- 일반회원 : 20,000원

## 동문회비 납부자

### 【 47회 신입동문 명단 】

문희경, 이현우, 최은혜, 서은아, 양병찬, 김시우, 원재희, 이상영, 강철민, 김영필, 김영준, 전형진, 전주만, 이영이, 강영미, 김민영, 김형연, 박선경, 박준영, 임충민, 이동규, 이윤기, 주강현, 박시내, 이성재, 이병무, 김종석, 이동훈, 엄고혜, 이혜진, 배나래, 손형운, 권은숙, 주민경, 최세경, 최명식, 채현주, 박정실, 박태환, 서지연, 한아름, 성나미, 류혜리, 김현수, 원정은, 김희정, 이은형, 박 석, 이주연, 이종화, 이은희, 장성필, 임윤정, 전승미, 조영래, 정영일, 정경은, 지청산, 강수진, 심현진, 신현주, 김세영, 김성준, 김병수, 김미경, 김기돈, 권용환, 김용성, 김향미, 김진표, 김준희, 박유경, 박숙현, 원미경, 윤혜경, 원태준, 이성완, 이상수, 양은미, 안지현, 이용진, 손진혁, 오준호, 고연아, 구영희, 하진주, 탁재현, 최 훈, 최진희, 최정원, 한유진, 한원선, 한수정, 한상덕, 황인선, 한정훈, 우재광, 이효진, 김윤정, 박인선, 박지애 (101명)



삼년이 그렇게 빠른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다.  
동문회보 12호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힘들었는지도 예전에 미처 몰랐다.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도와주는 손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예전엔 몰랐었다.  
13호부터 시원한 표지가 준비되고 또 새로운 2년을 향해 달린다.  
동문회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되기를 기도해 본다.

황 공 용 (11 회, 부회장/편집위원장)

# 進

약사 회무에 참여한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처음으로 전체 동문들의 심부름꾼으로 일을 맡은 감회가 남다르다.  
급변하는 시대 만큼이나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동문들의 갖가지 의견들을 녹여내는 용광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다짐해 본다.  
14대 회장단, 그리고 동문여러분 화이팅!!

# 明

매월 두번째 일요일, 포천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진료 봉사에 참가한지 벌써 10개월이 넘었다. 처음에는 뭐가 먼지 모르는 상태로 오로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봉사 한다는 신념으로 몇몇 뜻을 가진 의료인과 함께 시작했는데 지금은 적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관심과 참여가 그곳에 가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은 이야기들이 촉촉히 젖은 외국인들의 눈망울을 포근히 감싸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다.

# 康

새로운 것이 무조건 존경 받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낡은 것은 끼워주는 것만으로 감사를 해야하는 시절. 그러나 아닙니다. 먼저 산 삶의 반성을 통해서 오늘이 있고, 다름 아닌 그 상처에서 돌아난 새살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실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술을 새부대에 담지 못하고 미련스럽게 버티는 자의 변명

# 濼

새롭게 편집위원회 말석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약사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나의 손이 미치는 영역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다는 작은 바람으로 출발의 변을 삼고자 합니다.

〈편집위원장〉 황공용(11회) 〈편집위원〉 정명진(18회), 김기명(18회), 박희용(23회), 이준(29회)

### 동문여러분의 육고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



# “잘 돌죠?”

혈액을 잘 돌게하는  
써큐란 꼭 챙기세요”



**당신의 혈액순환  
궁금하시죠?**  
**혈액순환 전문 상담**  
**1588-7976**  
 문의하시는 모든 분께  
 혈액순환 정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혈액을 잘 돌게하는 써큐란은 서양산사, 멜리사엽, 은행잎, 미늘유 등이 함유되어 있는 복합생약제제로서 특히, 중년이후에 나타나는 혈액순환장애 증상에 효과적인 혈액순환개선제입니다.

혈액을 잘 돌게하는 -

# 써큐란®

● 용법·용량: 성인 남녀 1일 3회, 1회 1~2캡셀





비타민C에 녹차, 아세로라까지 한 병에!

# 제노비타



맛에서도 효과에서도  
새롭게 마시는 비타민C - 제노비타!  
비타민C에 녹차의 깨끗함과  
아세로라의 상큼함을 더했습니다.  
이제껏 맛보지 못한  
비타민의 파워를 제대로 느껴 보세요.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 서울/경기북부지역 : 02)726-8861, 02)726-8875 ■ 경기남부지역 : 031)260-3285 ■ 인천지역 : 032)881-2766  
■ 원주지역 : 033)760-9561 ■ 대전/충남북지역 : 042)630-6273 ■ 전주/전북지역 : 063)220-6128 ■ 광주/전남지역 : 062)570-5219  
■ 대구/경북지역 : 053)605-4418 ■ 부산/울산지역 : 051)811-4517 ■ 마산/경남/제주지역 : 055)250-7761

**CJ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00 / OTC팀 : 080-700-8802



# 낮과 밤을 가리는 감기약...

양 · 한방 복합 맞춤형



**1** 단계 치료효과  
**엔드콜**  
엑스과립  
초기 증상 감기(근원성·양약복합)

정우 엔드콜은 자연 발현이 없는 두통, 발열, 오한, 견비통을 동반한 비교적 재력이 있는 경우의 감기, 코감기, 열성질환의 초기, 열중성질환에 효과가 우수한 순수 한방재제인 골근탕에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분리되지 않는 거담), 각성제 등의 양약과 생약이 합리적으로 배합되어 복잡한 감기의 모든 증상(두통,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에 신속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3** 단계 맞춤형  
**노노콜**  
캡슐  
기침·가래·오한...  
비타민C 함유

노노콜 캡슐은 생약재제의 소시음탕 처방과 양약 성분이 복합 함유된 제제로 예로부터 소시음탕은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혈액의 점도를 개선, 면역력을 조절함으로써 각종 원인으로 인한 만성질환, 만성염증을 치유하고 면역력을 증강하는 처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양약성분의 해열진통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이상적으로 함유된 종합 감기약입니다.

**2** 단계 맞춤형  
**아웃콜**  
캡슐  
코물·기침·목감기  
항바이러스제 함유

아웃콜 캡슐은 각종 환경요인으로 인한 인체 면역력 저하와 급격한 기온 변화 및 바이러스의 각종 일러르기 원인을 질투이 되어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및 콧물, 기침을 수반하는 감기에 최우선적으로 처방 되는 순수 생약재제의 소시음탕에 양약성분의 해열진통제, 소염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이상적으로 함유된 종합 감기약으로 복잡한 감기의 모든 증상을 효과적으로 다스립니다.

**데이 & 나이트**  
**엔드콜**  
캡슐

낮과 밤에 따라 성분을 달리해 현대인의 일상패턴에 따라 조절된 획기적인 양·한방 복합의 맞춤형 감기약으로 낮에 복용하는 엔드콜 데이 캡슐은 졸음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 있지 않아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운전자, 학생들의 제 감기 증상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가라 앉히고 밤에 먹는 엔드콜 나이트 캡슐은 코감기통에 강력한 효과를 갖는 반면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약 성분을 첨가하여 감기 환자의 조기회복에 좋은 신개념의 종합 감기약입니다.



### 효과빠른 N세대 변비약

**적용증** 변비, 변비에 수반하는 다음 증상의 완화 : 머리 가 무거움, 역산, 피부거칠, 부스럼, 식욕부진(식욕감퇴), 복부팽만, 장내이상발효, 치질



### 구내염·구순염·설염

**적용증** 다음의 증상의 완화 : 구각염, 구순염, 구내염, 설염, 습진, 피부염, 옷오름, 진주름, 여드름 및 피부가 트는데, 다음의 경우의 비타민 B<sub>2</sub>, B<sub>6</sub>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 저하



### 순수한방생약제제

**적용증** 두통, 감기로 인한 인후통, 입이 마르고 기침





**중앙대학교의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 565-1700 팩스: (02) 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